

어서 오시게

진달래 축제

2024. 4. 6.(토) ~ 4. 14.(일) <9일간>

이 봄, 천년의 역사가 깃든
고려산의 아름다운 진달래를 만나러 어서 오시게!



벚꽃축제

2024. 4. 1.(월) ~ 4. 10.(수) <10일간>

(5~7일, 10일 4일간 소규모 공연 진행)
* 기상 상황이나 관람 여건에 따라 일정, 내용, 시간 등은 조정됨



강화 고려산 진달래꽃구경 안전관리 계획 심의 강화군, 2024년 제1회 안전정책 실무 조정위원회 개최



강화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강화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강화군이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강화군 안전정책 실무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소방·경찰·전기 등 안전 관련 분야 위원들이 참석해 강화군의 대표적인 봄꽃 행사인 '강화 고려산 진달래꽃구경'의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 장소 시설물 등 관리자의 임무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 사항 및 비상 연락에 관한 사항 ▲산불 등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사항 ▲안전관리 요원 및 안전 시설물 배치에 관한 사항 ▲관람객 이동

동선에 따른 통제에 관한 사항 ▲행사장 질서 유지 및 교통 대책 등 행사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고려산 진달래꽃구경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 고려산 진달래꽃구경'은 오는 4월 6일~14일 강화군 고인돌 광장 및 고려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군은 개최 1~2일 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확보 '사활', 지역경제 활성화 당부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



강화군 확대간부회의

강화군이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윤도영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유천호 군수의 별세로 13일까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강화군은 윤도영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해 군민들의 삶이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윤도영 권한대행은 지난 장례 기간 동안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준비 등 장례 준비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부터 직원들까지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녹록하지 않은 지역경제에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올해 2,014억 원보다 479억 원이 증가한 381개 사업, 2,493억 원을 확보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국정 기조에 발맞춰 중앙부처와 인천시의 투자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으로 사업별 사전 절차 이행, 부처별 사업 설명, 국회 방문 등 예산 신청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변함없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계획한 사업들이 2025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방문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외포항! 수도권 서부권역 최고 거점어항으로 육성 강화군, 외포항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윤도영 권한대행 “더 많은 방문객이 더 자주 방문하게 할 것



외포항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22일 국장 및 사업 부서장과 함께 외포항 종합 발전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외포리 일대를 생태·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최고 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외포항 어촌 뉴딜사업, 종합 어시장 건립사업,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오늘 2025년까지 완료된다. 또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상 조망대, 미디어월, 해상테크길 등은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288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과 함상공원(마산함)은 조성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포항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방 어항으로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로 어족이 다양하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새우젓(추젓)은 껍질이 얇고 영양이 풍부해 김장용으로 인기가 좋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계획된 사업들을 적기에 완료해 더 많은 방문객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로 확포장 및 우회 도로 개설, 주차장 추가 조성, 생활오수처리 및 공중화장실 등 기반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봄철 산불방지, 행정력 총동원



산불예방 행정력 총동원



산불예방 행정력 총동원

강화군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청명·한식을 앞두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화군은 현재 13개 읍·면에 산불감시원 58명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21명 등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해 집중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분청·사업소 등의 공무원을 읍면별 추가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 불법소각, 불법 화기 소지 등 산불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예찰 드론 도입,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감시카메라 운영 등 산불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의 산불 주요 원인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이 차지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은 반드시 파쇄기로 파쇄하고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오는 27일~4월 19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강화군, '농어업인 수당' 첫 시행...매월 5만 원 지급



강화군이 오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4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초에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 수당'은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8월 인천시와 재원 분담률 등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농어업인 수당의 취지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례 명칭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실제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바 있다.

사업비는 총 64억 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가 당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올해 수혜 대상은 10,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자이다.

단, 부부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등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강화군,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제로화 3점식 안전띠 지원



강화군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안전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점식 안전띠란 3개의 지지점이 좌석에 고정돼 어깨와 허리, 복부를 감싸는 형태로 상체를 붙잡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띠이다.

군은 영유아의 몸에 맞는 3점식 좌석 안전띠 설치를 어린이집에 지원해 통학 차량 사고 발생 시 중상해 피해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관내 11개소 어린이집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지원금은 차량 인승별로 15인승 이하는 20만 원, 16인승~24인승 이하는 30만 원, 25인승 이상은 50만 원이며, 4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안전띠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3~5세 아동 보육 어린이집 대상 영어 전담 특별활동 강사료 지원 등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고, 어린이가 안전한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보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책백하 기자

강화군, 위기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출발



강화군, 위기가구 찾아라!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출발

강화군이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발생, 가족 돌봄 부재 등 신(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 이웃을 대상으로, 복지공무원과 복지 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읍·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주민력 강화지원 ▲신(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4개 분야 및 8개 과제로 구성된다.

읍·면별 위기가구 발굴 연계 추진 사업은 ▲길상면의 위기가구 발굴 원스톱봉사단 ▲송해면의 우리는 이웃 일촌 ▲내가면의 안녕! 봄·여름·가을·겨울 등으로, 읍·면별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촘촘한 복지망을 펼칠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읍·면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촘촘하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강화군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신속 추진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 신속 추진

강화군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머리를 맞댔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김상길 재정기획관, 성하영 예산담당관, 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 등과 함께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현장 등을 찾아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 201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현재 공정률 33%를 보이며 2025년 12월로 준공이 미뤄졌다.

이에 인천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강화군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4월 19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사무소 접수 강화군, 노후화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체해 드려요!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전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후

강화군이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에 부착된 10년 이상 지난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기간 노출로 탈색되거나 훼손된 건물번호판이 증가하면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있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번호판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9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체 조사와 건물(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 훼손이 심한 건물번호판부터 우선 교체된다.

아울러 주소 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주소 정보안내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군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주소 정보시설 일제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 이후 2024년 1월 기준 관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39,723개 ▲도로명판 4,104개 ▲기초번호판 1,704개 ▲사물주소판 491개 ▲주소 정보안내판 4개 ▲국가지점번호판 819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와 주소 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주소 정보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농식품 상품 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지원 신청 접수



강화군, 농식품 상품 판매 경쟁력 제고

강화군이 상품 차별화와 제품 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강화군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이며, 3개소를 선정해 포장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후 강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각 읍·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032-930-4123)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강화군, 소형농기계 사업비 3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

강화군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해 오던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총 5,847대의 친환경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는 농기계 기준단가를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보조금을 기존 132만 원

에서 180만 원으로 36% 더 지원한다. 또한, 소형농기계 품목도 78종에서 82종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이며 1농가당 1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최벽하 기자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 ☎ 032-930-4176
읍면사무소 산업팀



강화군,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강화군,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강화군,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농·임업인은 4월 5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강화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위해
최대 300만 원 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울타리)

강화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며, 40%는 지원자가 부담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농경지를 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농·임업인으로, 오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철선 울타리, 방조망 설치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1,634개 농가에서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8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고라니, 멧돼지, 오리 등을 포획하고 민통선 지역에는 기피제를 배포했다"며, "다방면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일제 접종 계획보다 1주일 앞서 진행 강화군, 2024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 추진



강화군, 2024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 추진



강화군, 2024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 추진

강화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 2024년 상반기 정기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일제 접종 계획보다 1주일 앞서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소 19,659두, 염소 1,732두이다. 생후 2개월 미만 또는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제외 대상이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군은 일제 접종 후, 한 달 이내 항체 형성을 모니터링

을 진행해 검사 결과 항체 형성률 기준(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미달 농가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에 5톤가량의 소독약품을 일괄 배부해 일제 소독도 장려·시행한다. 영세 사육 농가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축협에서 소독약품을 배부하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기에 맞게 약품이 적정 살포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매년 4월~10월 전국적으로 소, 염소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해 왔으며,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준 덕분에 구제역 NSP 항체 검출 이력과 항체 형성률 미달 농가가 없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형성률 관련 행정처분이 철저해진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2개월령 1차, 3개월령 2차, 이후 6개월 간격 추가 접종)을 해주길 바란다”며, “농장 내 소독 및 방역 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확한 진단·컨설팅 한 번에 받고
경쟁력은 높이고!**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대상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은 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하고자 마련됐으며, 공고일 기준 관내 영업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변화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은 컨설팅 분야별 경영관리, 마케팅관리, 위생·식재료 관리, 메뉴 개발, 푸드테크 도입·적용, 법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식 업소의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란다”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올해는 10개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100% 범위에서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의 ▶ **환경위생과 위생팀 ☎ 032-930-3532**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계양구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 업무협약 체결...152개소, 30톤 공급 강화군, 고품질 강화섬쌀 계양구 경로당에 공급



강화섬쌀 수확사진



강화군이 영양 가득한 강화섬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에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계양구 경로당 152개소에 강화섬쌀 30톤이 공급된다.

18일 강화군(강화군수 권한대행 윤도영), 계양구(구청장 윤환), 강화군농협쌀 공동사업법인(대표 김영운)은 ‘계양구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강화군은 2022년 연수구 161개소 경로당에 쌀 공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남동구 192개소와 동구 39개소의 경로당에 강화섬쌀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화섬쌀은 풍부한 일조량을 받으며, 미생물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 해안 기후의 큰 일교차와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거듭되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캐나다에 강화섬쌀을 수출하고, 타 지자체 경로당에 공급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유통망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동건강부스 운영... 주민 큰 호응 강화군보건소, 군민 건강을 위해 직접 찾아가합니다!



강화군보건소 군민 건강을 위해 직접 찾아가합니다



강화군보건소 군민 건강을 위해 직접 찾아가합니다

강화군이 군민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건강부스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건소라 불리는 이동건강부스를 통해 주민들은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수치 측정 등을 측정하고, 만성질환으로 의심될 시에는 의료기관을 연계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구강보건 및 감염병, 심뇌혈관질환, 금연, 치매, 정신건강 등 보건소 내 타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동건강부스는 현재 강화읍 35개 경로당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4월부터는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행복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방문한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으로 관내 주민들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스 운영 일정은 일주일 전 각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되며,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032-930-4033

불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농 폐비닐 수거



불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농폐비닐 수거

강화군 불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학겸)가 관내 쓰레기 취약지와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했다.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지오염을 방지하고, 불법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안길 및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했다.

이날 김학겸 협의회장은 “논밭에 산재해 있던 폐비닐을 정리하니 불법 소각이 눈에 띄게 줄고 농촌지역이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염명희 불은면장은 “깨끗한 날씨에도 마을 환경정비에 힘써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주민들도 영농 폐비닐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산면 자연환경보전회, 같이 걸어요! 강화나들길



삼산면 자연환경보전회 같이 걸어요! 강화나들길

강화군 삼산면 자연환경보전회 명예지도원(회장 이대규)이 지난 20일 석포리 나룻부리항 선착장부터 남섬 인근 나들길(11코스) 일원의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평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룻부리항을 중심으로 주변 해안가에 떠밀려 온 표류물과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남섬 근처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을 수거하며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대규 회장은 “활동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 고향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희 삼산면장은 “꾸준히 불법 무단투기를 단속해 깨끗한 삼산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송해면 이장단,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전개



송해면 이장단 환경정화

강화군 송해면(면장 한정진)이 지난 15일 송해면 이장단(단장 천상식)과 함께 도로변 및 송릉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새봄을 맞아 송해면 이장 12명 전원이 참석해 방치된 폐낚시용품 및 스티로폼, 페트병 등 각종 생활쓰레기 약 2톤을 수거하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한정진 면장은 “이번 활동에 솔선수범해 참여해주신 이장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다시 찾고 싶은 송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2024년 제1회 강화군 호국 백일장 공모전
강화군, 숭고한 나라 사랑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요!



강화군이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제1회 강화군 호국 백일장 공모전」을 추진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백일장은 나라 사랑(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시화(시를 곁들인 그림) 작품을 신청받으며, 강화군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초·중등부 각각 6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상과 함께 홍보용 책자, 2025년 대회 포스터, 카카오톡 카드뉴스 등에 게재된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오는 6월 6일 현충탑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9회 현충일 추념 행사’와 연계해 추진된다. 수상작 12개 작품은 상장을 받고 행사장에 전시되며, 초·중등부 최우수 2개 작품은 추념사 직후 수상자가 직접 낭독하는 기회도 주어지는 등 예년보다 더욱 다채롭고 뜻깊은 추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강화군청 홈페이지(강화소개→강화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응모신청서 및 출품작을 강화군청 복지정책과(☎032-930-3316)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어촌 정착을 도와드립니다...인천시,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다음달 5일까지 2024년 2기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
현장중심의 어업·양식업 기술 교육으로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촉진과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제2기 귀어학교 교육생을 18일부터 4월 5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 귀어학교는 5월 7일부터 6월 7일
까지 5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으로, 어선어업, 양식
업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과 현장
견학(체험) 및 선도어가의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인천 귀어학교는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인천 귀어학교 도시민 기술교육과정 수료생에게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금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창업어가 멘토링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등 향후 계획된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 희망자, 재촌비어업인 및 귀어인 등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어업기반이 확보된 경우 만 65세 이상도 응시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귀어정착 가능성이 높은 자와 청년 귀어자를 우선해서 선발한다.

교육생 신청은 공고문에 게시된 응시원서를 작성해 귀어 교육 실적, 해양수산 관련 자격증 등 제출 서류와 함께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032-440-8874)로 4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시 수
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제1기 교육생들의 교육열의가 매우 높아 이번에 모집하는 2기 교육 또한 많은 호응이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많은 도시민들이 귀어학교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고

이경수

고려궁지와 강화유수부



강화유수부 이방청

명위헌과 이아

1231년(고종 18), 몽골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됩니다. 다음 해인 1232년(고종 19)에 고려 조정은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깁니다. 6월 17일에 강화 궁궐 공사가 시작됩니다. 고종이 개경을 떠난 날은 7월 6일, 강화에 도착한 날은 7월 7일입니다. 궁궐 조영이 시작된 지 스무날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당연히, 궁궐이, 없습니다. 임금 고종은 어디로 가야 하나.

객관(客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강화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궁궐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1234년(고종 21)쯤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읍, 강화도에 새로운 궁궐이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고려궁궐은 없고요, 궁궐터만 전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고려궁지(高麗宮址)라고 부릅니다.

고려궁지 계단 올라 '昇平門'(승평문)이라는 현판 걸린 대문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승평문은 고려 궁궐 성곽의 남문 이름입니다. 들어가 보니 궁궐 자리 치고는 공간이 좁네요.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이라서 작게 지었나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적 고려궁지는 대몽항쟁 당시 궁궐 후원 정도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궐 중심 영역은 고려궁지 아랫마을, '궁궐'이었던 것 같고요. 궁궐 남쪽 경계는 용흥공공원 아래 김상용 순의비각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궁궐의 남문인 승평문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고려궁지에 있는 건물들은?

조선시대와 관련된 건축물입니다. 먼저 보이는 곳으로 가지요. 높다란 느티나무 앞세우고 선 당당한 옛 건물 앞에서 현판을 읽어봅니다. 음, 음, 못 읽겠습니다. 저렇게 흘려 쓴 글체는 한문 전공자라도 읽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안내판을 보니 '明威軒'(명위헌)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명위헌이라고 쓴 거구나. 명위헌은 강화유수

부 동헌입니다. 강화유수 집무처였던 것이죠. 지금 고려궁지 안에는 명위헌 외에 외규장각, 강화부종각, 이방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철종 재위기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부터 행궁과 외규장각 그리고 왕실 사당인 장녕전, 만녕전, 봉선전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려궁지 동쪽 담장 너머까지가 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고려궁지는 한마디로 '조선 왕실의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유수가 근무하는 동헌은 지금 자리가 아니라 저만치 아래쪽(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순간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병인양요(1866) 때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불질렀습니다. 프랑스군이 물러간 뒤 주민 통치에 꼭 필요한 동헌과 객사만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동헌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명위헌입니다. 함께 지었던 객사는 사라지고 명위헌만 남았습니다.

1782년(정조 6)에 정조의 명으로 들어선 외규장각(外奎章閣)! 의궤를 비롯한 나라의 중요 서적을 보관했던 왕실 도서관입니다. 프랑스군이 불 질러 없었던 것을 2003년에 복원했습니다.

강화동종을 건 강화부종각(江華府鐘閣)은 어떨까요, 원래 자리가 여기였을까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행궁·장녕전 등이 있던 그 시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임금 모신 신성한 사당 코앞에서 큰 종을 맨날 쳐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711년(숙종 37)에 전등사에서 제작한 강화동종은 강화산성 출입문의 여닫는 시간을 알리던 동종입니다. 저 아래 김상용순의비각 자리에 있던 것인데 1970년대에 지금 자리로 옮겼습니다. 진품은 강화역사박물관에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새로 만든 복제품입니다.

강화부종각에서 이방청(吏房廳) 뒷문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들어갑니다. 'ㄷ' 형태의 날렵한 건물

이에요. 뭐하던 곳인지 느낌이 옵니다. "여봐라, 이방!", "예, 사또!" 할 때의 그 이방입니다. 자연스레 '이방청은 이방의 근무처'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각종 설명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이방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이방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아 건물은 없습니다. 이방을 비롯한 고을의 행정 실무자들이 모여 일하던 공간은 이방청이 아니라 이청(吏廳)입니다. 이청은 작청, 질청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강화유수부 이방청'이 아니라 '강화유수부 이청'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그나마 무난했을 겁니다.

공식 명칭을 이방청으로 지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속수증보강도지》에 '이방청'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따서 이방청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수증보강도지》는 지금의 '이방청'을 '이아'라고도 썼습니다. 이리저리 따져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방청으로 부르는 건물은 이청이 아니라 이아(貳衙)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청과 이아가 다른 것인가? 그렇습니다. 수령이 근무하는 동헌을 상아(上衙)라고 합니다. 이아는 두 번째[貳] 아(衙)라는 뜻이에요. 강화유수부의 이인자 격인 경력(判官)의 근무처가 바로 이아입니다.

1904년에 강화진위대 대대장 이동휘가 강화에 보창학교를 세웁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 건물을 몇 번 옮겼는데요, 1911년부터 폐교되던 1915년까지 옛 이아 건물을 교사(校舍)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진도 남아 있고요. 보창학교였던 옛 이아 건물이 바로 지금의 '이방청'인 것입니다. '이방청'이 '이아'의 오용(誤用)일 가능성이 큼니다.

지금까지 고려궁지 안에 있는 조선의 강화유수부 동헌 등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수부가 무엇이고, 강화가 유수부가 된 것은 언제이며, '유수부 강화'가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강화유수부 동헌



강화부중각

강화, 유수부가 되다

1627년(인조 5) 정묘년,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니, 정묘호란입니다. 인조 조정은 강화도로 피란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후금군은 강화도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1월 13일에 후금군이 조선 땅으로 침쳐들어왔고 1월 17일에 우찬성 이귀가 “강화를 피난처로 정해 놓았다가 만일 안주에서 패보(敗報)가 오거든 상계서는 곧바로 강도로 들어가소서.” 권합니다. 1월 19일에 인조가 강화로 파천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1월 26일에 한양 궁궐을 떠나 1월 29일에 강화에 도착합니다.

3월 3일에 조선과 후금이 강화도호부에서 화친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냅니다. 전쟁 기간이 채 두 달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 끝난 1627년(인조 5) 4월 2일 조정. 비변사가 인조에게 강화에 유수부를 설치하고 심열을 유수로 임명하자고 아뢰입니다. 강화도호부를 강화유수부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심열은 1604년(선조 37)부터 1605년(선조 38)까지 강화도호부사를 지냈기에 강화 사정에 밝은 관료였습니다.

인조가 환도(還都)한 뒤에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환도? 예, 아직도 강화도 조정입니다. 3월 3일에 정묘호란이 종료됐으나 인조는 계속 강화도에 머물렀습니다. 후금군이 조선 땅에서 모두 철수한 뒤인 4월 10일에야 강화도를 떠나 한양 궁궐로 돌아갑니다. 70여 일 동안 인조 조정이 강화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환도하고 한 달 흐른 1627년(인조 5) 5월 11일, 인조가 심열을 종2품 강화유수로 삼습니다. 이렇게 강화가 유수부가 되었습니다.

읍격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대현	소현
지방관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품계	종2품	정3품	정3품	종3품	종4품	종5품	종6품

위 표는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단위와 해당 지방관의 품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縣)부터 부(府)까지 모두 더해서 330곳 내외였습니다. 강화유수는 왜 표에서 뺐나? 넣는 게 좀 그렇습니다. 강화유수는 법적으로 외관직(外官職, 지방관직)이 아니라 영의정, 이조판서 등과 함께 경관직(京官職, 중앙관직)에 포함됐습니다.

《경국대전》(1485)은 중앙 종2품 관청으로 사헌부, 개성유수부, 충익부를 들었어요. 당시에는 유수부가 개성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속대전》(1746)에는 중앙 종2품 관청으로 사헌부, 개성유수부, 강화유수부가 나옵니다. 영조 당시 유수부가 개성과 강화에 설치된 것입니다.

“무릇 유수(留守)라고 하는 것은 고도(古都)를 맡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강도(江都)의 관원을 무턱대고 유수라는 명호로 일컫는 것은 부당하니 부윤(府尹)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광해군일기》

1618년(광해 10)에 광해군이 한 말입니다. 신하들이 강화도호부사를 강화유수로 올리자고 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해군이 거절하면서 부윤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무릇 유수라고 하는 것은 고도(古都)를 맡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유수란, 옛 도읍지의 수령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개성이 고려의 도읍이었잖아요. 개성이 유수부가 된 것은 세종 때인 1438년(세종 20)입니다.

광해군은 강화를 강도(江都)라고 말하면서도 대몽항쟁기 강화가 고려의 도읍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1619년(광해 11)에는 우의정 조정이 강화는 고려의 옛 궁궐터가 남아 있는 구도(舊都)라고 하면서 유수부로 삼을 것을 간접적으로 청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강화의 수령은 도호부사(부사, 종3품)였다가 광해군 때 부윤(종2품)이 되고 인조 때부터 유수(종2품)가 되는 것입니다.



명위현 현판

인조가 강화를 유수부로 삼은 것은 강화가 고려의 도읍지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라를 지키고 한양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중요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조 때부터 ‘옛 도읍지’라는 유수부의 개념이 국방상 중요 지역이라는 의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과 강화 둘뿐이던 유수부가 정조 때 추가됩니다. 수원유수부와 광주유수부입니다. 수원에 화성이 있고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이제 유수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옛 도읍지가 아니라 한양을 외곽에서 지키는 국방 개념의 행정구역이 된 것입니다. 개성유수부는 북쪽에서 한양을 지키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고

강화도 '총선 깎두기 역할' 하더라도... 목소리는 내야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4월 10일 전국에서 300명(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진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화군 유권자들은 중구·옹진군 주민들과 함께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지난 28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돼 후보들은 길거리에 저마다 장밋빛으로 가득한 공약 플래카드가 내걸었다. 유세차가 강화 곳곳을 누비며 강화군민의 표심을 잡으려 안간힘이다. 만일 후보자들의 공약대로만 이뤄진다면 유권자들은 더 이상 바랄게 없을 정도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20대·21대 총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3번째 대결한다. 20대 선거 때는 두 사람 모두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에게 패했다. 4년전인 2020년 21대 때는 배준영 후보가 조택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화군이 배후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그의 당선에 큰 몫을 했다. 보수색이 강한 강화의 표심이 이번 총선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인천의 관심거리다.

강화군은 오랫동안 총선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는 뚜렷하게 내지 못한 채 깎두기 역할만 해왔다. 유권자수 부족으로 지역구가 여기저기와 합쳐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찬밥신세였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국회 출범후 지금까지 모두 21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 중 강화

군만의 독립된 지역구 선거는 광복 후인 1948년부터 1967년까지 7대 선거 때까지만이었다. 이때까지 강화군만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이후 강화군은 선거권자의 기준 미달, 선거구제 개편 등으로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 김포 고양이나 인천시 서구 계양구와 함께 선거구가 되어야 했다.

1995년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부천 김포 고양과 떼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다. 인천시가 되면서부터는 인근의 서구와 계양구와 지역구를 이뤘다. 얼마전부터는 서구와 계양구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작은 권역인 중구 동구 옹진군과 합쳐져야 했다.

이러는 와중에 강화는 단순한 지역구의 한 지역일뿐 다른 지역에 파묻혀 강화군민만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았다. 선거구가 다른 지역과 합쳐지다보니 출마 후보자들은 강화보다 더 중요한 지역을 챙기고 주로 그 지역의 입장만을 반영해왔다. 물론 후보자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강변하겠지만...

이번 선거도 강화군은 중구·옹진군과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있다. 3개 지역으로 이뤄진 선거는 중구, 그 중에서도 영종도가 결정권을 가진 모양새다. 영종도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출마 후보들은 3개 군구중 표가 가장 많고 표심이 유동적인 중구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다. 특히 중구 가운데서도 새로운 결정지로 떠오르는 영종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화도는 유권자수도 적지만 출마자들이 강화도를 자세히 모른다는 점도 강화도에 관심을 덜 쏟게 만든다.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조택상 후보가 자신들이 나름 인천 출신이라고 내세우지만 피상적인 현안 정도만 파악할 뿐 실제로 강화도의 정서나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한다. 강화도는 그냥 표를 얻는 곳이요, 지나가는 방문지인 셈이다.

두 후보가 강화도와 관련해 내세운 공약은 대충 이렇다. 조택상 후보는 ▲강화 도시가스 확대 공급 ▲서울도시철도 5호선 강화 연결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 등이다. 현역인 배준영 후보가 내건 공약은 ▲강화~영종대교 조속 건설 ▲강화까지 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이다. 주로 교통 문제이다. 그러나 강화주민들에게는 교통보다 더 시급한게 적지 않다. 우선 주민들이 초고령화다보니 복지와 의료 시설 및 개선이 무엇보다 급하다.

이번 총선에서 더 걱정인 것은 강화의 보수 표심이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표(死票)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 강화군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등떠밀려 선거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누가 당선돼도 아무렇지 않다는 무관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는 이번 총선을 비롯해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강화도를 위해 어떤 공약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실천되는지 강화주민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만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는 것이다.

어느 총선보다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을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사전선거 5~6. 본선거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각당 진영에 우위를 정하고자 필사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과 국민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각 지역, 국민의 대표로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들 중 범죄기록이 깨끗하지 않은 후보들이 전체의 3분의 1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후보들의 면면을 파악하고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가 후보로 나섰는지 혹여라도, 당이 헛발질로 내보낸 후보

라면 국민이 심판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어쩌면 삼진아웃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 국회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연행이 불일치하는 후보들의 모순당착(矛盾撞着)한 모습들은 국민들의 실망감에 역력히 드러나는 작고의 현실임에도 오히려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당장의 현실은 외면한채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진흙탕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것인지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실망과 혐오만 쌓여갈뿐이다.

특히 각 당의 대표들 중에는 본인이 법에 판결을 무시하면서 상대방의 비판에 앞장서는 아가사창(我歌查唱)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범법자, 범죄인들이 나라를 쥐락 펴락하는 것 같은 일련의 모습들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뿐이다.

옛말에 어른들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린다(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남의 잘못만 탓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번 총선은 과거 어떤 선거보다 유권자의 날카롭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에 걸맞는 인성과 삶을 살아온 존경할 가치가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함을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우리는 반듯이 선거에 참여하여 유권자의 힘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매서운지 국회에 회초리를 들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강화의 미래를 끌어나갈 대표를 뽑는 신성한 자리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고 강화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보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떨어진다

내가면 황청리 멘토의힘 대안교육센터 지도교수 유담

**“읽을 줄 알아도 뜻은 모른다.”**

“오픈AI도 긴장하는 ‘앤트로픽’은 누구? ...

생성 인공지능(AI)이라는 폭탄을 투하했던 오픈 AI. 늘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게 IT 시장이지만, 챗 GPT가 가져온 충격은 생각보다 더 대단했다. 생성 AI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됐고,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의 추격에도 오픈AI의 공고한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스타트업의 등장은 오픈 AI마저 긴장하게 했다. 최근 출시한 AI 모델이 높은 성능을 자랑하며 강력한 적수로 떠올랐다. 꼭 필요한 기능만 넣고 정확도를 높인 모델로 오픈AI를 바짝 뒤쫓으며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 이야기다.”

위에 인용한 글은 ‘바이라인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신문에서 따온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단번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면 디지털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최근에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인터넷과 각종 온라인매체, 방송 등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용어들을 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에 잠시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치 글자를 못 읽는 문맹인처럼 사회의 흐름을 쫓아 가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경우를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을 가까이하지 못할까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 핑계에 불과합니다.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좋은 정보에서 소외되어 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회활동에서도 점차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는 문해력이란 무엇일까요?

문해력(文解力)이란 한자어로 文:글월 문, 解:풀 해, 力:힘 력자로 쓰고 있고 글을 풀어내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말과 글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해력의 종류에는 커다랗게 언어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으로 나뉩니다. 언어 문해력은 책과 문서 등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도표와 통계자료까지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언어 문해력은 직장에서는 업무능력과 직결되는 능력이며 학생들에게는 학습능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이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조합하는 능력과 디지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스마트폰에는 편리하고도 업무능력을 높여주는 무궁무진한 기능이 앱이라는 기능 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자녀들의 문해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디지털 문해력이 약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언어 문해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필요성을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쏟아지는 정보시대 속에서 빠른 정보,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문해력이며 학생들에게는 책을 읽고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능력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중요한 문해력은 언제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문해력을 높이려면 몇 가지 방법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이 문해력을 높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책을 읽을 때는 책에 대하여 궁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읽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둘째, 책을 읽을 때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두는 방법으로 읽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용어,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며 책을 읽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르는 단어와 개념들을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문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신문기사, 학술논문, 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책을 읽고 토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문해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읽은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비교해보는 시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며 사회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좋은 학습능력을 훈련 시키는 방법이며 문해력이 높아지는 비결이 독서 활동입니다. 이렇듯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문해력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서와 토론교육 전문가인 필자는 강화투데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재능기부를 통한 독서학교와 토론클럽을 시작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서 나들길 순찰대 운영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21일 강화군 갑곶리 소재 강화나들길 2코스에서 「강화서 나들길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찰서장, 각 과장, 인천기동순찰2대(대장 김지현) (사)강화나들길,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청소년범죄예방협의체, 강화군자원봉사센터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강화서 나들길 순찰대」는 매년 강화군 봄꽃(진달래·벚꽃)축제 개최에 따른 나들길·등산로 방문(약45만명)에 따른 치안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범죄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화서 자체 추진시책이다

특히 강화서는 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높은 주민체감안전도 1위의 경찰서로 이는 주민 및 협력단체가 지역치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내 치안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순찰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뤄내 결과로 이번 「강화서 나들길 순찰대」에도 주민과 협력단체가 적극 참여한다

강화서 나들길 순찰대는 나들길(20개 코스) 및 마니산 등 주요 등산로 곳곳을 매월 1회 순찰하며, 각종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며 또한 인천항공순찰대에 항공순찰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간 강화서에서는 나들길 순찰대의 내실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강화군청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나들길·등산로 내 국가안전위치표지판 추가 설치 및 경찰·지자체·소방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록거울 설치 예산 협의 등 범죄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강화나들길에 대한 범죄안전 진단을 활용, 범죄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역특성에 맞춘 공동체협력 치안 활성화의 일환으로 나들길 순찰대를 활성화 함으로서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나들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정진 기자

환경29호 강화군지부, 하천 정화운동 및 자연사랑운동 실시



환경29호 강화군지부 구자충지부장은 지난 3월 23일 30여명의 회원과 하점면 고인돌 수로부터 당산리 수로까지 약 1.8km 구간의 하천 정화운동을 실시하였다.

미니 쪽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하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가 하면 경사진 풀숲을 헤치며 위험을 무릎쓰고 하천 사랑운동에 앞장섰다.

이번 활동은 하천의 정화와 동시에 자연사랑운

동을 추진하여 지역 사람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자충지부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정화운동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며 더욱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의 동참을 기다리며, 지역 발전과 환경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제17회 암 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강화군, 암 검진! 미루지 마세요!



강화군, 암 검진! 미루지 마세요

강화군이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최고의 건강 비결은 국가 암 조기 검진'을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강화군보건소와 터미널, 품물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암 예방 수칙이 담긴 리플릿과 채변통 등을 배부해 암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짝수년생 출생자로, 50세 이상은 매년 대장암 검진 대상이다.

이날 보건소 관계자는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군민들이 조기 암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화군보건소는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서정진 기자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검진실 ☎ 032-930-4047

강화군,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추진 세계 결핵의 날 맞아 결핵 조기 검진 및 적기 치료 독려

강화군이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2일 품물시장과 강화터미널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범 군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강화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받기 ▲65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결핵 검사하기 ▲결핵 예방 생활 수칙 ▲올바른 손 씻기 등을 홍보하고,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핵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린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기침 및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증상은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등이다. 결핵약에 내성이 없는 환자가 결핵약을 2주 이상 복용할 경우 전염성은 대부분 상실되며, 6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면 90% 이상은 완치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핵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강화군,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추진

내게 맞는 약초를 알아보세요!



인천수목원, 약용식물 시민강좌 운영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오는 4월부터 인천수목원 약용식물 시민강좌 「생활 속 약초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약초 건강교실은 약용식물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용식물의 효능·성분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수목원 현장학습, 약재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강좌는 오는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1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용식물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신청자에 한해 약용식물 자원관리사 자격증 취득의 기회도 제공된다.

고창식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건강에 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약용식물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내 몸에 맞는 약용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잘 활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의 공원 누리집 (<http://www.incheon.go.kr/park>) 공원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인천수목원(☎032-440-5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정진 기자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책전문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